

## 한솔제지 코트지 '양상블' 출시

한솔제지가 고급인쇄용 코트지 '양상블'의 국내시판에 들어갔다.



지난 1월의 테스트 마케팅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양상블은 지난

해 한솔제지 특수지 부문 최대 히트상품인 이매진지의 계보를 잇는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급 인쇄용지로 고가의 수입지 대체가 가능한 양상블은 넘기는 감이 유연하면서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질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리프그로스 하이벌크 코트지로서 시각적으로 높은 인쇄 표현력이 요구되는 고급 출판서적을 비롯해 고급 무크지, 화보집, 작품집 등을 겨냥해 개발됐다. 한솔제지 측은 "양상블은 글씨 위주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시각화, 고급화되는 최근의 출판물 경향에 따라 시각적 인쇄 표현성을 높였으며 수입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출판서적물의 고급화를 주도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솔제지는 양상블 외에 고급 팬시지인 매직콤파, 매직패브리크 등도 출시하였으며 수입지에 의존하는 기존 고급 팬시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 한솔제지 사무실내 고객 상담실 설치

한솔제지는 지난 3월5일과 12일 양일 동안 고객 상담실을 보장하는 등 사무실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무실 환경 개선작업은 현장 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업사원들의 자리 배치를 조정하고 이를 대신해 고객상담실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 한솔제지 측은 "고객 상담실 보강은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 한솔제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다양한 상담실에서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무림제지 · 신무림제지 고객만족 마케팅 교육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마케팅마인드 혁신을 통한 고객

만족과 영업능력 향상을 위해 본사 전 영업직 사원과 고객사 영업관리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월1회씩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임미연 강사(KMAC 서비스컬리지 주임교수)가 맡았다. 지난 3월까지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응대의 기본자세와 마인드 제고를 주제로 한 1차 교육, 영업사원 능력향상을 주제로 영업사원들의 효과적인 고객응대 기법에 관한 2차 교육, 팀워크 개발과 목표달성 과정을 강의하는 문제해결 마인드혁신에 관한 3차 교육이 이뤄졌으며 4월에는 전략수립과 성과 평가시의 최고관리자 마인드혁신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무림제지측은 ACTS, 범창지류판매 등 대형지류유통사의 영업직원들도 상당수 참석해 높은 교육열과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 무림제지 · 신무림제지 PI 이슈 워크샵 개최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지난 2월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PI 이슈 및 개선기회 공유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본사와 대구공장, 진주공장 등 3개 사업장에서 임원과 부팀장급 이상 관리자, PI추진팀 전원과 컨설팅 시행사인 IBM BCS 컨설턴트 등 총 61명이 참가, PI프로젝트 출범 후 한달 된 시점에서 PI팀과 IBM BCS컨설팅사가 공동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슈 및 개선기회를 임원 및 관리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워크샵은 PI프로젝트 소개, 성과관리 강연, 이슈 및 개선기회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슈 및 개선기회 등이 임원과 전 관리자의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됐다. 최종 결정된 이슈 및 개선기회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 순위별로 중점혁신과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 한국제지 A-프로젝트 성공기원 40km 강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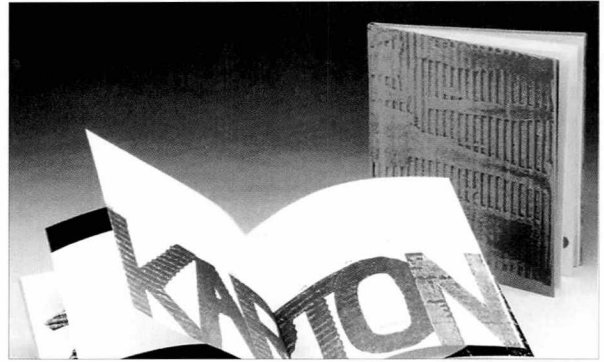
한국제지의 영업 본부를 주축으로 한 임직원들은 지난 2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강화도에서 A-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는 40km 행군을 감행했다. 2월25일 창립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군은 김광권 전무이사를 비롯한 영업본부 23명, 물류팀 4명, 총무인사팀 1명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한국제지 영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군은 복사지를 주력생산품으로 하는 PM4호기 증설 계획(A-프로젝트)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을 겨냥해, 점증되는 수입 복사지의 추격을 뿌리치고 영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심무장을 다지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틀 동안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군에서 참가자 전원은 아무런 불상사 없이 모두 40km 행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흥원제지 고속 재단기 도입

흥원제지가 최근 코버제지그룹(Korber PaperLink Group)의 자회사인 E.C.H Will로부터 최근 두 대의 고속 재단기 FS PRO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FS PRO는 드루와 2004에서 중형범위 제지업체를 겨냥해 소개된 제품으로 전지용 재단기이다. FS PRO의 혁신적인 오버래핑과 전달 시스템은 종이와 판지를 처리함에 있어 흠집 없는 종이를 보증한다. 이를 통해 한면 또는 양면 도공지 및 보드지의 예민한 표면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갖췄다. 또한 파지절감 및 중단 없는 팔레트 교체 등을 통해 연속적인 생산도 가능한 설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과 관련, 흥순호 사장은 “우리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 설비에 꾸준히 투자할 것이며 수출용 종이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2대의 FS PRO 전지용 고속재단기를 통해 국내 고객은 물론 국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아티스트 북展 강진숙=독일상자 개최



독일에서 15년간 판화와 이를 응용한 아티스트북 작품 활동을 해 온 작가 강진숙의 전시회 ‘아티스트 북展, 강진숙=독일상자’가 지난 3월25일에 시작, 오는 4월30일까지 중곡동 삼원페이퍼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 강진숙의 독일에서의 15년 작품활동 결정체인 아티스트북 작품 10여점과 독일작가들과 공동 작업한 작품 15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상자라는 작가의 오랜 주제로 상징화되어 있으며 독일에서의 활동을 접고 귀국하면서 소중하게 담아온 작업들이 마치 상자를 열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한편,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판화를 전공한 작가는 판화작업과 판화 영역의 확장된 예술형태인 아티스트 북 작업을 해왔으며 아티스트 북의 본 고장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작가의 예술적 독창성이 널리 인정돼 현재 다수의 작품이 독일의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 라이프치히 활자 인쇄 박물관과 미국의 앤아버 도서관 등에 소장돼 있다.

## 대성그룹 중국의 제지 사업진출 검토

대성그룹이 중국의 제지 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모기업인 대성산업이 중국 제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광둥성 중산시의 한 제지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김영대 회장이 중국의 제지 사업 진출에 관심이 많다”며 “이에 따라 중국내 제지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